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

표지 탐색하기

<걱정 마, 쌀리>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.

1) 책의 제목과 표지의 첫인상은 어떠한가요?

⇒

2) 책 표지에 보이는 인물과 배경을 묘사해 보세요.

⇒ 인물 :

배경 :

3) '열한 살 아프리카 소년의 가슴 찡한 가족 이야기'라는 책의 부제를 볼 때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나요?

⇒

4)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.

'열한 살 우간다 소년 쌀리와 지구 반 바퀴를 날아온 한국인 아저씨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'

이 내용을 볼 때, 책의 제목 '걱정 마, 쌀리'는 쌀리에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일까요?

⇒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배경지식 쑥쑥 키우기

다음은 이 이야기의 배경인 나라 ‘우간다’에 대한 설명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 (본문 12쪽을 참고하세요.)

우간다의 정식 명칭은 (㉠))입니다.

아프리카 동부 내륙 깊숙이 위치한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고, 영화 《타잔》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. 면적은 남한의 2.3배이고, 수도는 (㉡))입니다. 빅토리아 호수, 에드워드 호수, 앨버트 호수, 부뇨니 호수 등 호수와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, 기름진 국토와 생산되는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지요. 우간다는 현재 세계 빈곤국 50개국에 들어 있습니다.

1) 윗글에서 빈칸 ㉠, ㉡에 각각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.

2) 윗글에서 밑줄 친 호수 중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?

- ()는 우간다뿐만 아니라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 있는 큰 호수다.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나일 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.
- 쌀리는 () 근처에서 무중구를 처음 만났다.

3) 이 책을 읽고 알 수 있는 우간다의 현실 상황과 우간다 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세 가지 이상 써 보세요.

①

②

③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어휘력 쑥쑥 키우기

다음에서 왼쪽은 <걱정 마, 쌀리>에서 나온 문장들입니다. 문맥상 이 문장의 각 빈 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오른쪽에서 골라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.

- 1) “그런 뜻이 아니야. 다 먹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부족했었나 싶어서.” 아저씨가 오히려 미안해하며 머리를 ().
 - ㉠ 주춤했다
- 2)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흙투성이인 발을 보고 ().
 - ㉡ 흘깃거렸다
- 3) 남비 아저씨가 보다 못해 소매를 (). 아저씨는 싱글싱글 웃으며 비누칠한 손으로 내 얼굴을 박박 문질렀다.
 - ㉢ 긁적였다
- 4) 칠 일째 되는 날, 코밑에서 턱밑까지 시꺼먼 수염을 기른 남자가 나타났다. 남자는 한 손으로 부스스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사무실을 ().
 - ㉣ 으쓱해졌다
- 5) 동업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().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양 우쭐해서 실실 웃음도 났다.
 - ㉤ 걷어붙였다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어휘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걱정 마, 쌀리>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고속 도로에 들어서자 지프차는 뒤뚱거리는 것을 멈췄다. 나는 손잡이를 놓고 의자에 몸을 푹 맡겼다. 그러나 그것도 잠시, 뒤따라오던 트럭이 지프차를 ㉠추월하느라 중앙선을 넘어서 앞질러 갔다. 앞쪽 굽은 길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코치가 지프차 앞에서 방향을 획 틀었다. 나는 손잡이를 다시 덩석 붙잡았다. 아저씨도 굽은 길이 나올 때마다 바짝 긴장을 했다. / “휴!” / 쪽 뺀 도로에 들어서자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. 아저씨가 그런 나를 보고 하하 웃었다.

“앗! 조심해요!” / “음! 짹 잡아!”

㉡과속 ㉢방지 턱에서 지프차가 펄쩍 점프를 했다. 그 바람에 나는 몸이 봉 떠서 천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.

1) 밑줄 친 ㉠~㉢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각각 찾아 번호를 쓰세요.

- ① 자동차 따위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함. 또는 그 속도.
- ② 뒤에서 따라잡아 앞의 것을 앞지름.
- ③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.

㉠ :

㉡ :

㉢ :

2) 윗글에서 밑줄 친 ‘굽은 길’을 한자 어휘로 표현하면 ‘곡선 도로’, ‘쪽 뺀 도로’를 한자 어휘로 표현하면 ‘직선 도로’로 쓸 수 있습니다. 이때 ‘곡선(曲線)’과 ‘직선(直線)’의 한자 뜻을 알아보세요.

曲線 :

直線 :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독해력/사고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걱정 마, 쌀리>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호숫가의 푸른 풀과 꽃나무들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. 높다란 나무마다 노란 새들이 총총 모여 내 속도 모르고 지저귀었다. 언젠가 실비아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.

“저 새들을 보세요.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않지만 잘 자라지요? 그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에요.”

㉠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 때에도,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.

“헛! 하나님은 나보다 새가 더 중요한가!”

나는 심통이 나서 죄 없는 새를 쏘아봤다.

(나) ㉡“하나님이 아저씨만 먹고 살래요?” /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쏘아붙였다.

“아! 그, 그건 말이다…….” / 무중구가 당황해서 우물거렸다.

㉢“풀은 흙이나 물만 먹어도 살아요. 그렇지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! 나는 먹지 않으면…… 죽는다고요!” / “…….” (중략)

‘차라리 나도 풀이었으면 좋을 뻔했어!’ /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서 숨죽여 울었다.

1) (가)에서 밑줄 친 ㉠의 이유는 무엇일지 서술하세요.

⇒

2) (나)에서 쌀리의 말 ㉡, ㉢에 담긴 심정을 서술해 보세요.

⇒

3) 이후에 무중구가 쌀리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, (나)에서 쌀리의 말을 듣고 무중구는 어떤 마음 또는 생각이 들었을까요?

⇒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독해력/사고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걱정 마, 쌀리>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㉠ “그게 어떻게 얻은 건데! 형은 할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으면서……. 나는 엄마 아빠도 없고, 할머니도 없고, 아무도 없다고! 그게 전부란 말이야!”

나는 बारबार 소리치며 주먹질을 했다. 그때였다.

“형! 키지리 형!” / 키지리 형의 동생이 울면서 달려왔다.

형이 나를 밀어젖히고 벌떡 일어섰다. / “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냐니까!”

키지리 형이 우는 동생을 다그쳤다.

“내놔! 내 토마토 내놔! 내 바나나 내놓으라고!” / 나는 형의 등짝을 마구 때렸다.

“할머니가…… 할머니가 죽었어.”

동생은 겨우겨우 말을 이었다. 키지리 형이 툭툭 주저앉았다. (중략)

(나) 나는 두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지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다. 형이 모아 놓은 소라 껍데기들이 무릎에 박혀 아팠다.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더 큰 소라 껍데기가 박힌 것처럼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.

1) (가)에서 키지리에게 ㉠과 같이 말하는 쌀리의 심정을 써 보세요.

⇒

2) ㉠에서 줄임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써 보세요.

⇒

3) 키지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쌀리가 (나)와 같은 상태가 된 이유는 무엇일지 서술해 보세요.

⇒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독해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걱정 마, 쌀리>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'이제 곧 돈도 생길 텐데…….' / 무중구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. (중략) 마따뚜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내내 눈길이 자꾸만 선글라스에 꽂혔다. / '후딱 내려서 보고 올까? 얼마인지만 알면 좋은데…….'

기사 아저씨는 아직도 의자에 푹 기대어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.

나는 엉덩이를 들었다 놔다 하다가 벌떡 일어났다. 그러고는 후다닥 상점 앞으로 다 갔다.

(나) "아!" / 마따뚜가 막 정류장을 출발하고 있었다. "아저씨! 아저씨!" 나는 소리 지르며 급하게 쫓아갔지만 기사 아저씨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양 썩 가 버렸다.

"에이, 가게까지 걸어가게 생겼네." / 다행히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싼유모토였다.

(다) 그러나 가게 쪽으로 발을 댄 순간,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

"수첩!" / 그만 마따뚜에 수첩을 두고 내린 것이었다.

"어떡하지? 어떡하지?" / 나는 갈팡질팡하다 찾길을 따라 뛰었다.

"으, 제발! _____!"

1) (가)~(다)에서 쌀리의 마음 또는 심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.

(가)	
(나)	
(다)	

2) (다)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상황에 맞게 써 보세요.

⇒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사고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걱정 마, 쌀리>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• “그 무중구가 너 평생 공부 가르쳐 준대?”

• “무중구들은 언제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릴지 몰라.”

• “전에 고모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. 그 동네 학교에는 무중구의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 꽤 많았지. 쳇! 그런데 무중구들이 갑자기 후원을 끊는 바람에 아이들이 졸지에 학교를 그만뒀다니깐.”

• “너도 언제 다시 고아가 될지 모르잖아. 안 그래?”

• “너도 미리미리 살 궁리를 해야 하잖아. 무중구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다시 가난뱅이가 될지 몰라. 무중구는 믿을 게 못 되거든.”

(나) “네가 마토보에게 돈이 있으니 장사를 하자고 했다던데?”

“아, 아니에요!” / 나는 팔짝 뛰었다. / “그래? 그럼 네 얘기를 들어 보자.”

“그게…… 그러니까…… 아저씨는 언제든 한국으로 가버릴 수 있다고…….”

나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아저씨에게 더 숨길 수 없었다.

“마토보가 그러더냐?” / “네…….”

㉠ 아저씨는 한동안 말을 잃고 기막힌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.

1) (가)는 마토보가 쌀리에게 한 말들입니다. 마토보는 무중구(들)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.

⇒

2) (나)에서 아저씨가 밑줄 친 ㉠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지 서술해 보세요.

⇒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* <걱정 마, 쌀리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사고력/문장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걱정 마, 쌀리>의 내용 일부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“말라이카!” / 아저씨가 널려 있는 빨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. 이마에 굵은 주름 두 개가 그어졌다. 아줌마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와 무중구 아저씨의 옷부터 부라부라 건었다. 아줌마는 비에 젖은 빨래를 처마 밑에 옮겨 널면서 입술을 배쪽거렸다.

(나) “왜 빨래를 건어요?” / 나는 남비 아저씨를 쫓아가 물었다.

“무중구들은 빗물에 빨래를 널지 않는데. 수돗물에서 이미 깨끗이 행켰다고 생각하거든.” / “빗물에도 행구면 좋잖아요. 더 깨끗해질 텐데.” / “무중구들은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. 하긴 피부색도 이렇게 다른데. 빨래를 널고 걷는 것 다른 것쯤이야 뭐 별거겠니. 어쨌거나 우리는 무중구 사장님이랑 사니까 사장님의 뜻에 따라야지.”

(다) 후드득, 빗방울이 떨어졌다. 눈물이 그렁그렁한 나를 아저씨가 나무 아래로 잡아끌었다. 빗소리에 말라이카 아줌마가 후다닥 뛰쳐나왔다.

“그냥 뒤요, 말라이카.” / 말라이카 아줌마가 빨래를 걷다 말고 아저씨를 쳐다보았다. 뭘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이었다.

“그냥 두래요, 아줌마! 축복이 내리잖아요!”

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,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.

(가)	우간다 사람들과 무중구 사장님 사이의 문화 차이
	→ ()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상황
(나)	→ ()이 ()에게 맞춘다.

↓ 변화

(다)	()이 ()에게 맞춘다.
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더 가까워짐.	



걱정 마, 쌀리 (초등 5학년)

파란자전거 | 김란주 글 / 박윤희 그림



정답과 해설

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르니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. ^^

1쪽	(예시 답안) 1) 제목은 위로하고 감싸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을 준다. 표지 그림은 투박한 느낌이 들고 이 아프리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호기심이 생긴다. 2) 인물 :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한 흑인 소년. 맨발이고 옆구리에 종이상자 같은 것을 낀 채 뒤를 돌아보고 있다. / 배경 : 바닷가(사실은 호숫가) 3) 열한 살 아프리카 소년(이 소년이 쌀리일 것 같다.)의 가족들이 가난하고 병들어 가슴 아픈 일을 겪는 이야기일 것 같다. 4) 친구가 된 한국인 아저씨가 쌀리에게 가족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말일 것 같다.
2쪽	1) ㉠ : 우간다공화국, ㉡ : 캄팔라 2) 빅토리아 호수 3) (예시 답안) 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말라리아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많다. ② 소년들이 호숫가에서 소라 껍데기를 주워서 가게에 팔아 돈을 번다. ③ 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. 등등
3쪽	1) ㉢ 2) ㉣ 3) ㉤ 4) ㉥ 5) ㉦
4쪽	1) ㉢ : ㉡, ㉣ : ㉠, ㉤ : ㉢ 2) 曲 : 굽다, 휘다 線 : 줄, 실 / 直 : 곧다 線 : 줄, 실
5쪽	1) (예시 답안) 새들은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는데, 자신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니 하나님이 자신은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2) (예시 답안) 잘 먹고 사는 무중구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 3) 자기가 이 아이를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.
6쪽	(예시 답안) 1) 배신감과 분하고 서러운 마음 2) 아무도 없고 혼자뿐인 내 걸 가져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, 너무해 정말! 3) 키지리 형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
7쪽	1) (가) 무중구 아저씨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설렘 / (나) 마따뚜를 놓쳐 아쉬움 / (다) 마따뚜에 수첩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무척 당황함 2) (예시 답안) 마따뚜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할 텐데. / 수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야 하는데.
8쪽	1) 무중구들은 후원을 해주다가도 언제든지 끊고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릴지 모르므로 믿을 만하지 않다. 2) (예시 답안) 쌀리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가 나중에는 왜 쌀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고민되었을 것이다.
9쪽	빗물에 빨래를 행구는 것, 우간다 사람들, 무중구 사장님, 무중구 사장님, 우간다 사람들